

첨단산업 소부장 투자지원 확대 1700억 투입... 로봇·방산 등 추가

산업부, 약 30개 기업 지원 예상
신규 입지·설비투자액 30~50%
핵심 소부장 국내생산 기반 안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총 1700억원 규모(지방비 포함)의 투자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범위 확대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4대 분야에 이어 올해부터는 '로봇'과 '방산' 분야가 새롭게 추가해 총 6개 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비 예산을 지난해(700억원)보다 300억원 증액된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지방비 등 700억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별 평균 지원 규모(약 55억원)를 고려하면 약 30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목표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과도 기대된다. 국비 지원 한도는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최대 200억원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22개 기업에 약 1200억원을 지원해 총 5561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지원 기업의

80%가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산업부는 오는 5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지자체(오후 1시)와 기업(오후 3시 30분)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월 17일 16시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현장 실사와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 기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을 탄탄히 하여 첨단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역량 있는 소부장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ys@metroseoul.co.kr



이달 13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소재의 국제학교 ASF 교정에 설치된 '축구 테마체험존'의 모습./aT

aT, 멕시코 청소년에 K-푸드·문화 알리

ASF서 체험행사... 1000여명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멕시코 청소년 대상의 K-푸드 체험행사를 열었다. aT는 2026 북미 FIFA 월드컵을 한 달 앞둔 이달 둘째 주, 개최국인 멕시코 현지지를 찾았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3~1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소재 국제학교 ASF에서 '케이푸드 엔 두 에스쿠엘라'(학교에서 즐기는 K-푸드) 행사가 열렸다. 재학생 등 1000여 명이 체험에 참가했다.

aT는 한국 식문화 및 교육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행사 첫째 날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비빔밥, 김치, 잡채, 떡볶이 등 대표적인 K-푸드를 시식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월드컵 분위기를 반영해 축구 테마의 공간에서 슛 썰링지를 진행하고, 한복체험·전통놀이 등의 K-컬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기는 시간표를 짰다.

둘째 날에는 교직원과 급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향후 학교급식으로의 K-푸드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K-푸드 요리교실을 운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해남 해상풍력 공동접속으로 효율화

전력망 건설거리 416km 단축
투자비 3.6조 ↓, 주민수용성 향상

한국전력(한전)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력을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망에 직접 연결한다. 이를 통해 송전선로 길이를 416km 단축하고, 총 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절감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15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상풍력 발전사 5개사와 함께 '해남지역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CIP(해금·해송), KREDO(신안블루), DWO(청해진), 조도풍력 발전(외병도), 다도풍력(운림) 등 총 5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통합설비 구축 비용 분담, 전력망 적기 건설, 발전설비 적기 준공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 방식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들이 내륙 변전소까지 각자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중박 설비 처리에 따른 국토 난개발과 주민 수용성 약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해남 해상풍력 공동접속'은 섬이나 해안가에서 발전된 대규모



(왼쪽부터) 강명원 DWO한국 대표이사, 니콜라스 그람바스 KREDO COO, 김동철 한전 사장, 김성환 기후부 장관, 페라다코 파타나한 조도풍력 대표이사, 이화루 CIP 투자 총괄 파트너, 김태경 다도풍력 대표이사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모 전력력을 서해안 HVDC에 직접 연결해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방식이다. 발전사들이 고객 변전소와 HVDC 변환소를 통합 구축하고 접속설비를 공동 활용하게 된다.

한전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703km에 달했던 전력망 건설 거리가 287km로 약 416km나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사가 부담해야 할 투자비도 약 3조 6000억 원가량 대폭 절감된다. 또한, 장거리 송전선로와 중박 설비가 줄어들면서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이 동시에 확보되고, 계통수용 가능용량 및 계통 안정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이번 해남 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 고창, 고흥, 영흥, 태안 등 전국 9개 지역에 공동접속 단지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공동접속 사업이 완료되면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완화와 환경영향 감소 등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전은 이번 해남 공동접속 사업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장기 송전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참여 발전사와 세부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해남 지역 공동접속 업무협약은 해상풍력 계통 연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대전환점"이라며, "발전단지와 공용망을 통합하는 전력망 재구성을 통해 한전과 발전사의 사업 부담을 줄이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표원, 신기술·신제품 인증 28개 선정

수소 재순환 패시브 이젝터 기술과 맥봇 로봇 자동 통제인저 제품 '주목'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국내 최고 수준의 신기술과 신제품 28개가 최종 선정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2026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을 공고하고 해당 기업들에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에는 총 411개 기술과 제품이 신청해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약 1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28개(신기술 12개, 신제품 16개)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신기술 인증에는 총 170개 기술이 도전해 전기·전자(7개), 정보·통신(1개), 원자력·신재생에너지(3개), 화학·생명(4개), 건설·환경(1개) 등 5개 분야에서 총 12개 기술이 뽑혔다.

특히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흥스웍스가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용 코안다 효과를 활용한 수소 재순환 패시브 이젝터 기술'이 주목받았다. 이 기술은 추가 전력 없이도 연료전지에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및 재순환하는 무구동형

이젝터 시스템이다. 연료전지의 효율을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향후 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제품 인증 부문에서는 총 241개 제품이 신청해 전기·전자(6개), 정보·통신(1개), 기계·소재(1개), 화학·생명(3개), 건설·환경(5개) 등 5개 분야에서 16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대표적으로 기계·소재 분야의 유엔다가 개발한 '스위칭 마그네틱 기술 기반 맥봇 로봇 자동 통제인저'가 선정됐다. 이 제품은 로봇 한 대가 스스로 부품을 교체하며 다양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특히 탈부착 시(1초 이내 흡착·탈착)에만 순간적으로 전력을 소모하는 초절전 설계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제조 자동화는 물론 스마트팩,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확대가 기대되는 혁신 제품이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공공 조달 시장 판로를 지원받게 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우대 등 금융 지원과 각종 정부사업 신청 시점 우대 혜택을 받는다.

/한용수 기자

채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제징수' 전환

근로복지공, 국세채납처분 방식 적용

국가가 채불 노동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 집행 방식에서 국세채납처분 절차로 전면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도 즉각적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회수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강화하고, 채불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이는 전방위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 복잡한 민사 절차를 거

쳐야 했다. 이로 인해 대지급금 회수에 평균 290일이 소요되는 등 적기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세채납처분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채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공단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를 통해 회수 기간이 약 158일 수준으로 줄어들어, 기존 대비 132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하청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채불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해진다. 개정법은 근로기준법상 채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뿐만 아니라 그 상위수급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용수 기자

해수부 "당분간 흥해 통해 원유 들여올 것"

선원 심리상태 점검 병행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사쪽의 흥해를 페르시아만 사태의 일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동산두바이유 등의 석유를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거쳐 들여오겠다는 것. 이 해협은 흥해와 인도양을 잇는다. 정부는 또 페르시아만 해상에서 오도가도 못 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중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4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언론설명회(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대체 수송 경로가 절실한 상황이다.

황 장관은 호르무즈 봉쇄가 풀린다 해도, 일단 이전 항로의 원상 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항로가 (약간) 옆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만 연안 등을 이용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대체항로 흥해를 통한 원유 운송 상황도 전했다. 그는 "(사우디 서부 안부 소재) 안부항을 통해 원유를 적재한 배들의 경우, 한 척은 이미 하역했다. 또 세 척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이) 당분간 흥해 쪽으로 원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시아만 일대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발이 묶인 선박 관련 질의에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료품 등의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는 중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